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청년 창업가 세무 서비스 최대 30만원 지원

정읍시가 청년 창업가의 초기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역 내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영업 고정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2월부터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영 부담이 많은 청년 창업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무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초기 창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접수 기간은 12월 28일까지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신설원 기준으로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에 있는 사업주 △연 매출 3억 원 이하 △18세~45세 이하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내인 청년 창업가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파크골프장 상반기 2곳 준공 등 대폭 확충

고창군이 오는 2027년까지 5개의 파크골프장을 새로 지으면서 생활체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고 4일 밝혔다. 고창군은 현재 고창읍스포츠타운 파크골프장(27홀, 9,000㎡), 고수 파크골프장(9홀, 9,000㎡), 상하(9홀, 7,500㎡) 등 3곳의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이어 올 상반기에는 공음면 서남부권역 파크골프장(18홀)과 성송면 파크골프장(9홀)이 잇따라 개장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월암 저류지 파크골프장(27홀)과 운곡 파크골프장(18홀) 등이 준비 중이다.

월암 저류지 파크골프장(고창읍)은 총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7홀(면적: 50,000㎡)을 조성할 예정이다. 27홀과 넓은 면적이라는 환경에서 다양한 코스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교통문화지수 '전국 최고'

국토부, 2024년기준 교통문화지수 발표... 고창군 87.3점 전북 1위

지자체 교통안전정책 · 예산확보부문 1위 · 음주운전 준수율 1위

고창군민들의 운전매너와 보행안전, 군 행정의 교통정책 등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에서 고창군은 총점 87.3점을 기록해 전북 1위, 전국 군 단위(82개) 2위를 차지했다.

고창군은 전년도(2023년) 교통문화지수 총점 79.79점(군단위 그룹 51위)에서 무려 7.6점, 49위나 상승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고창군의 교통문화지수 최우수 성과는 군민들의 수준 높은 안전의식과 군 행정의 노력이 시너지를 발

휘했다는 평가다.

실제 고창군은 지난해 음주운전금지 준수율 조사에서 100%를 기록하며 수준 높은 교통안전의식을 뽐냈다.

또한, 방향지시등 점등률(97.4%),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80.1%) 역시 전국평균(방향지시등 점등률 75.5%,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 74.6%)을 훨씬 웃돌며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해 고창군 행정 교통안전 노력도 역시 큰 박수를 받았다. 고창군은 지자체 교통안전 정책 수립 및 운영, 교통안전 부문 예산확보 노력에

서 각각 군단위 그룹 1위를 차지했다.

한편, 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229개 지자체를 인구 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운전·보행·교통안전 3개 영역, 18개 항목을 평가한 값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운전·보행행태 개선으로 교통문화지수가 크게 향상됐다"며 "어린이, 어르신 등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홍보 캠페인과 교통약자 대상 교육, 교통안전 거버넌스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방도 707호선 2차선 개량

부안군, 부안읍 서외~신흥 1.6km 구간 도로시설 3월 착공

부안군은 지방도 707호 서외~신흥 도로시설개량 1.6km 구간을 총사업비 79억원(도비)으로 2025년 3월 사업착공 해서 2028년 12월 까지 완료할 계획으로서 금년 2월 부터 전북자치도(도로공항공청)에서 편입토지 보상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읍에서 부안스포츠파크를 연결하는 지방도 707호 도로시설 선형개량과 편측 보도설치로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지역주민 및 탐방객 접근성 향상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전북자치도에서 지난 2023년 3월 실시한 용역에 착수하여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완료로 이달부터 편입토지 보상과 오는 3월 사업에 착

공해 오는 2028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1.6km 도로선형 개량과 차선폭 3.5m 편측인도 2m 신설하여 지역주민 및 탐방객 교통편의 증진과 보행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북자치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도 707호(서외~신흥) 2차선 도로시설 개량사업은 부안읍과 부안스포츠파크 연결해 지역주민 및 탐방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빠른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도로공항공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전략작물 직불금 5월 30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를 향상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30일까지 받는다. 벼 대신 밀, 두류, 가루쌀 등을 재배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식량작물공동경영체 등이다. 신청 자격은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농업인)과 작기별 전략작물 1000㎡ 이상 재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 면적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논에 벼 대신 밀, 두류, 가루쌀 등 작물로 △소작료 △식용 옥수수 △깨(들깨, 참깨) 등을 재배하면 1ha당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올해 달라진 점은 하계작물로 깨(들깨, 참깨)가 새롭게 추가됐고, 밀(동

계)의 직불금 단가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사료(하계)는 48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됐다.

작물별 지원 단가는 △식량작물·조사료(동계) 50만원 △밀(동계) 100만원 △식용 옥수수·깨(하계) 100만원 △두류·가루쌀(하계) 200만원 △조사료(하계) 500만원이다. 특히, 동계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 두류나 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ha당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동계작물 재배 농업인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 재배 농업인은 5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농지가 여러 곳에 분산돼 있을 경우, 면적이 가장 큰 곳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97.5% 지급 완료

미신청자 위해 추가 연장

정읍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을 5주 연장한다.

시는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2월 28일까지 5주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전 시민 10만 2647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했으며 1월 31일 기준 97.5%(인 10만 120명)에게 지급이 완료

됐다. 시는 장기 출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직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시민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오는 5월 31일까지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설 명절 기간 동안 약 30억원이 소비되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수 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방세나 교부세 같은 일반 재원이 아닌, 이학수 시장 취임 이후 공무원들과 함께 추진한 강력한 예산 절감과 재정 정책의 결과물이다. 구체적으로 예산 조정 및 절감액 229억원, 예비비 50억원, 추경 삭감분 30억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마련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염원 퍼포먼스 동참



부안군은 지난 3일 열린 2월 열린 공감의 날 행사에서 전 직원이 함께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실시했다.

"부안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고 말했다. 아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되길 바란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정읍시가 농업축산식품부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약 83ha의 농지를 해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라 시는 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을 정밀 전수조사한 뒤 농지법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여건 변화에 해당하는 농지를 발굴 농업축산식품부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다. 그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83ha의 농지가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해제 대상지는 신태인읍 외 17개소로 도로, 철도, 하천 설치 또는 택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집단화된 농지

와 분리된 1ha 이하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다.

시는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제 대상 지역을 공개, 오는 2월 6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시·도 농정심의회와 농업축산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고시가 완료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마무리된다.

시는 농업진흥지역은 국민 식량 생산을 위한 우량 농지 확보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이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번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